

건축구성에 있어서 가벽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Free-standing Wall in the Architectural Composition

곽기표* / Kwak, Ki-Pyo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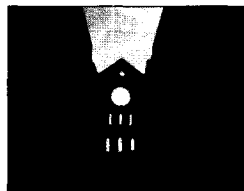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ole of free-standing wall from the viewpoint of architectural composition. After modern times the wall gets free of structure and the view of formative art changes, which become a basis of the conscious use of free-standing wall. It plays a role of getting territoriality and placeness by defining the space at the external territory and it is used as apparatus which controls circulation and orientation externally. At the same time it is used as an instrument to blur the border to make mutual intersection and plays a role of introducing and controlling the environment. The free-standing wall controls the architectural form to emphasize plasticity and is used to define a geometrical frame and maintain the urban context.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the free-standing wall is used as general vocabulary of modulating the border of space and the architectural form since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벽, 가벽, 내부공간, 외부공간, 영역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에서 기하학, 인문학, 철학, 행태학, 환경학 등의 배경을 가진 여러 이론들의 공헌이 있지만 그 이론들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리적 구축이며, 따라서 물리적 요소와 건축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건축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것은 주로 건축의 기본적 요소인 벽, 기둥, 바닥, 지붕 등의 구성이며, 각 요소들은 고유의 질서와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그 중 벽은 기둥과 더불어 평면구성의 기본이며 건축형태의 바탕으로서 다른 요소가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그 건물의 구성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그림 1>. 이처럼 건축구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벽은 주로 내부공간을 에워싸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가벽(假壁)을 들 수 있다. 근래 많은 건축물에서 가벽이 사용되고 있지만 무의미한 형태 만들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은



<그림 1> 산 갈가노 수도원
(Abbazia di San Galgano),
12-14세기

특히 최근 이삼십년간 하나의 '경향'을 이룰 정도로 가벽의 사용이 급증하여 보편적인 건축어휘로서 자리 잡았지만, 가벽을 과잉 디자인의 산물이나 형태조작으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¹⁾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는 가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역사적인 변천과 건축구성적 관점에서의 특성 및 구성방법을 파악함으로써, 가벽이 건축구성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은 건축에 있어서 가벽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역사적 변천을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 후, 실제 답사와 관련문헌 및 도면,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가벽의 건축구성적 주요 역할을 도출하며, 주요 작품 분석을 통해 그

1) 기존 연구의 경우 주로 '벽'의 역할을 기둥, 개구부, 빛, 색채 등과 관련 지어 서술하거나 내력-비내력의 축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 건축 형태·공간 구성과 관련된 벽의 역할이나 표현성에 대한 연구,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의미론적 연구들로서, 가벽에 대한 연구는 개별 건축가들의 작품 분석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광현, 벽의 의미에 관한 해석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양완, 한국 현대건축에서 벽의 미니멀리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관희, 윤도근, 근대건축 이후 나타난 벽의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95. 10 등 참조)

* 정희원,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특성과 구성방법을 알아본다. 작품분석은 관련 문헌 분석 등을 토대로 가벽의 역할이 크게 영역구성과 형태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하여 '외부 영역 구성', '내·외부 영역 구성', '형태 구성' 등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연구의 범위에서 시기적인 문제는 제한을 크게 두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서구지역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벽' 자체가 도시에 대하여 '담'의 역할을 하는 서구건축과는 달리 한국전통건축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권 전통건축의 경우 '담'이라는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건축이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현대의 대상건축물은 가벽의 의식적인 사용이 두드러지는 건축가들의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2. 가벽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2.1. 벽의 건축적 의미와 가벽의 개념

건축의 가장 큰 목적은 외부와 차단된 내부공간의 형성이며 차단의 수단으로서 벽, 기둥, 바닥, 지붕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여기에서 벽은 지붕의 하중을 바닥으로 전달하며 지지하는 구조적 기능 외에 내부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물리적으로 내부와 외부 공간을 한정하고 구획함과 동시에 개구부를 통해 연결시키며, 건축형태를 만드는 조형적 기능을 수행한다. 건축구성의 주요한 요소인 기둥도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의 설명처럼 일부가 잘려나간 벽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벽을 계획하는 법을 다룬 그의 '건축서' 1장 10절에서 "일렬로 늘어선 원주는 다수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일 뿐"²⁾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간을 한정하는 벽은 때로는 벽의 일부가 제거되거나 추가로 덧붙여지는 등 그 구성과 성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현상으로 가벽을 들 수 있다. 가벽은 현재 여러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먼저 완전한 실내공간을 한정하지 않는 외벽으로서 실내공간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잉여의 벽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자립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천정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 내력벽이면서 내부공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의미로는 실내공사 현장에서 내력벽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건물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해 바닥에서 천정까지 올라간 비내력의 내벽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벽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

2)담은 건물의 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차단하지만 내부공간을 한정하지 않는 요소로서, 주로 주어진 영역에 대한 소유권 표시, 외부의 시선 차단이나 침입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담은 가벽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건물 본체의 구성질서에 속하기보다는 영역을 에워싸는 역할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는 점에서 가벽과 구별될 수 있다.
3)Leon Battista Alberti, L'architettura, trans. Giovanni Orlandi, Edizioni il Polifilo, Milano, 1989, p.39.

연구에서는 가벽을 건축구성적 관점에서 고찰하므로 하중의 적재 문제보다는 실내공간을 한정하지 않으면서 건축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규모를 가진 벽으로서 규정한다.

2.2. 가벽의 역사적 변천

(1) 근대 이전의 건축

근대 이전까지는 건축조형적 요소로 가벽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건축구조가 주로 내력벽으로 이루어져 한정된 구성수법과 표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로마시대에는 벽의 건축이라고 할 정도로 벽돌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벽체의 사용이 극대화되어 대규모 공간이 창조된 시기이다. 현재에도 폐허로 남아 있는 유적을 통해 또는 그 유적을 묘사한 도면 등을 통해 벽의 사용에 대한 일면을 볼 수가 있다. 이탈리아 로마 근교 티볼리(Tivoli)에 남아 있는 빌라 아드리아나(Villa Adriana)는 르네상스 시기 이후 많은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빌라 아드리아나의 건축물 대부분은 지붕이 허물어지고 벽만 남아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지붕에 덮여 있던 내부 공간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남은 벽을 응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 남은 벽에 의하여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공간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남은 벽을 묘사한 피라네지(Giam Battista Piranesi)의 동판화<그림 2>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주며 건축가에게는 새로운 공간에의 시사가 되기도 한다.⁴⁾ 또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이탈리아 여행 중 로마 폐허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빌라 아드리아나를 스케치한 것을 보면 피라네지와 유사하게 폐칠레(Pecile)의 긴 벽⁵⁾이 한 쪽에 표현되고 종이의 나머지 부분은 경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이것은 로마건축의 폐허화로 인한 가벽의 모습이 근대건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이며, 몇 년 후 미스에 의한 내부에서



<그림 2> 피라네지, 빌라 아드리아나의 폐칠레, 1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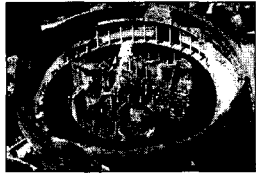
<그림 3> 르 코르뷔지에, 빌라 아드리아나의 폐칠레,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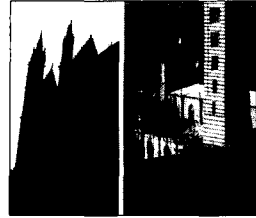
<그림 4> 바르셀로나 파빌리언, 미스 반 데어 로에, 1929

4)호사카요우이치로우, 경계의 형태, 이진민 역,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p.73.
5)건설 당시에는 양쪽에 열주와 지붕을 둔 길이 190m, 높이 9m의 긴 벽이었지만, 현재는 주변의 열주와 지붕이 사라지고 벽만 남아 있다. Salvatore Aurigemma, Villa Adriana, Istituto Poligrafico e Zecca dello Stato, Roma, 1984, p.56 ; Mario Lollo-Ghetti, et al., Villa Adriana, Silvana Editoriale, Milano, 1988, p.200

외부로 시선이 벽으로 된 상자 밖으로 연속해나가는 계획안<그림 4>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⁶⁾ 건축구성에서 건축역사의 공시적 의미를 확인하게 해준다. 빌라 아드리아나의 '수중극장(Teatro Marittimo)'<그림 5>처럼 영역성 확보를 위해 원래 벽 위에 볼트가 얹혀 있는 회랑을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가벽을 사용한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또한 로마 유적지의 폐허에서 발생하는 빛의 유입 현상이 르 코르뷔지에나 루이스 칸의 건축에 미친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로마건축의 경우 가벽이 의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폐허로 남아 있는 모습으로서 후대의 벽 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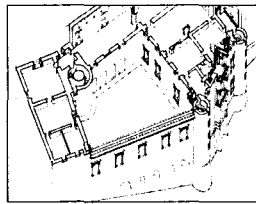


<그림 5> 빌라 아드리아나의 수중극장, 118-133



<그림 6> 오르비에토(Orvieto), 시에나(Siena)의 두오모, 13-14세기

한편 중세 이후 서구의 도시에서 기독교 교회가 주요한 공공건물로 떠오르면서 교회의 파사드(façade)는 중요한 건축적 표현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완결성을 추구하거나, 개보수에 따른 변형, 전면에 면한 광장 등 도시 형상과 관련되어 실제 내부공간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면의 일부분이 가벽으로 확장되어 정면의 형상을 결정짓게 되었다<그림 6>. 또한 가벽의 사용은 르네상스 시기에 정형적인 건축구성이 우세를 보이면서 주로 팔라초 등에서 내부 중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그림 7>.



<그림 7> 우르비노의 팔라초 두칼레(Palazzo Ducale di Urbino), 15세기

(2) 근대 이후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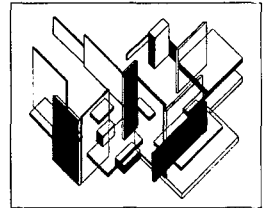
내력벽 구조에 의해 한정된 구성수법과 표현을 나타내던 이전의 건축과는 달리 근대 이후 나타난 벽은 두 가지 요인, 즉 발달된 기술에 의한 비내력벽의 자유로운 사용과 조형관의 변화에 따른 건축구성형식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의식적인 가벽 사용의 바탕을 이룬다.

산업혁명기 이후 서구의 건축은 구조로부터 분리된 벽체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딕 성당에서 경험하였던 벽의 물질성 소거에 의한 감동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 서구건축은 얼마나 투명해질 수 있는지의 경쟁이었고 스크린으로서의 벽 개념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르 코르뷔지에는 도미노 시스템을 통해 구조요소인 기둥과 공간요소인 벽체의 분리를 기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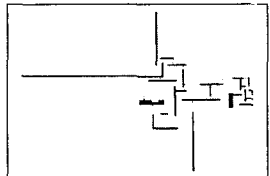
칙으로 삼았다. 이것은 기둥 열이 먼저 세워져서 구조 역할을 전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벽체가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순서로 설계가 진행됨을 의미했다. 지금은 보편화된 이러한 방식이 당시로서는 새로운 것이었고, 르 코르뷔지에는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구조방식에 맞는 이와 같은 설계방식을 제시한 것⁷⁾으로 구조와 건축형태 사이의 관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한편 근대 이후 조형관의 변화는 상자 형식의 해체에 의한 벽체 및 지붕의 자유로운 구성을 불러왔다. 데 스틸(De Stijl)의 건축가들은 경계를 구성하는 도구로서의 벽과 밀폐된 상자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건축은 벽을 해방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파괴하였다. 벽은 이제 지지체가 아니며 지지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새로운 건축은 반입방체(反立方體)적"⁸⁾이라고 하며, "폐쇄적 요소(벽체)의 해체에 의해서, 우리들은 내부와 외부의 이원성(二元性)을 제거"⁹⁾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근대건축의 대표적인 모델들은 모두 고전건축이 남긴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입방체를 개방시키려는 목적을 공유하였

기 때문에 데 스틸만의 조형관은 아니었지만 입방체 형태 윤곽을 가장 가시적으로 분해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그림 8>.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육면체의 개방을 무한공간의 확산으로, 그리고 르 코르뷔지에는 자유벽체의 가능성이 암시적으로 농축된 수평창으로 각각 정의하였다.¹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20세기 초가 되어서 비로소 서구의 건축역사상 가벽의 의식적 출현이 보이게 된다.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벽돌벽의 집 계획안'<그림 9>은 분해된 벽면의 구성으로 자립벽에 의하여 내부와 외부의 영역을 애매하게 하고, 나가서 내부 공간에 있어서도 실들 간의 경계를 제거하고 각각의 영역이 조금씩 성질을 달리하면서 연속해 나가는 것을 시도한 혁명적인 것이었다. 리트벨트(Gerrit Thomas Rietveld)의



<그림 8> 건축적 구성, 테오 반 피스부르흐, 1923



<그림 9> 벽돌벽의 집, 미스 반 데어 로에, 1923



<그림 10> 슈뢰더 주택, 리트벨트, 1924

6) Giovanni Denti ed., Le Corbusier in Italia, clup, Milano, 1988중에서 Eugenio Gentili Tedeschi, Le Corbusier e la Storia. I viaggi giovanili in Italia, p.47.

7) 임석재, 네오 큐비즘과 추상 픽처레스크, 북하우스, 2001, p.128.
8) Theo Van Doesburg, Tot een beeldende Architectuur(1924), Mara De Benedetti, Attilio Pracchi ed., Antologia dell'architettura moderna, Zanichelli, Bologna, 1988, p.340에서 재인용.
9) Theo Van Doesburg, Cor Van Eesteren, -□+=R4(1924), Mara De Benedetti, Attilio Pracchi ed., Ibid., p.343에서 재인용.
10) 임석재, 신추상과 네오 코르뷔지안 건축, 북하우스, 2001, p.255.

‘슈뢰더(Schröder) 주택’<그림 10>도 이러한 흐름을 강하게 의식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주택은 벽면이라는 요소가 그 역학적 요청과는 별도로 자유롭게 공간 좌표 속에 자리잡는 것을 겨냥하므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프로젝트와는 달리 지붕도 마룻바닥도 한 장의 판으로 벽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¹¹⁾

이처럼 근대 이후 비내력벽의 자유로운 사용과 조형관의 변화는 열린 개방사회에서 폐쇄된 벽을 개방하는 의미에서의 열린 자립벽을 형성하였고 그에 따라 의식적인 가벽의 형상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건축에서의 주요한 주제를 ‘벽’에 부여하게 되어 내부공간을 형성하지 않는 잉여의 벽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네오모더니즘, 미니멀리즘적 건축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근대합리주의에 근거한 경제적인 균등라멘은 기둥의 의미와 그 신화성마저 빼앗고, 열주의 리듬감도 빼앗아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둥을 대신해서, 벽이라는 주체가 부각된다.”¹²⁾는 안도 타다오의 말처럼 벽은 이제 고전건축의 열주랑을 현대적인 언어로서 스크린적 역할의 폐쇄적인, 때로는 편칭이 있는 가벽으로 대체하며, 입면요소로서 최근의 레이어, 더블 스킨, 이중 스크린 등의 사용으로 진전하고 있다.

3. 가벽의 건축구성적 역할

3.1. 외부 영역 구성

(1) 영역성-장소성

벽은 영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디자인 도구로서 특정 영역에 대한 장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많은 건축가들은 인공적인 벽의 구성을 통해 기억이나 회상의 장소로서 그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숄츠의 견해와 유사한 것으로 숄츠는 장소성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벽의 역할을 강조하고, 둘러싸고 통로, 중심 등의 개념에 의해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벽의 개방 정도에 따라 에워싸임이 형성되고 중심이 형성되고 통로에 의한 진입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건축의 영역성과 장소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일의 도구로 벽이 사용되는 것이다. 인간이 건축을 만들어 온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는데 있고 외부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에워싸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은 기본적으로는 그 둘레에 담과 같은 경계 구성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운데 중심적 건축이 있고 그 둘레에 유효한 공간이 있어서 담장 등으로 영역을 한정하는 것은 하나의 정형(定型)이며 비교적 원초적인 방법이다.¹⁴⁾ 이러

11)호사카요이치로우, Op. Cit., pp.7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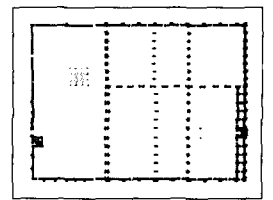
12)안도 타다오, 주택에 대한 사고, 김동영 역, 도서출판 국제, 2000, p.361.

13)김홍기, 건축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2, pp.269-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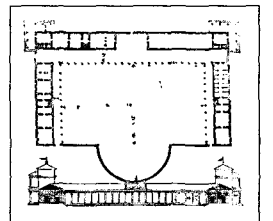
14)호사카요이치로우, Op. Cit., p.42.

한 구성은 건축물의 본체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종교적인 건축물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슬람 사원¹⁵⁾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그림 11>. 여기서 수직의 벽으로 둘러싸이고 지붕이 덮여지지 않은 외부공간은 시각적으로 하늘과 이어져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 하늘은 지상의 다양한 세계와는 달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의 세계이며 신에게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잡다한 외계로부터의 차단¹⁶⁾이 필요하며, 건축물에서 뻗어 나온 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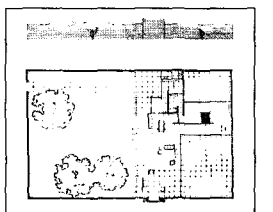
담의 변형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은 주변에 열주랑이 부수된 중정이 있는 서구건축의 많은 사례의 원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르네상스 시기의 팔라초나 빌라 등에서 볼 수 있다<그림 12>. 이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축에서도 관찰되는데 그의 ‘세 중정 주택’<그림 13>은 먼저 벽이 공간 전체를 한정하고, 그 내부에서 다시 구획되어 투명한 재료로 에워싸인 곳이 내부가 되는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안토니오 모네스티롤리(Antonio Monestiroli)의 ‘세그라테(Segrate) 보육원 계획안’<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유형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변형은 과밀한 도시환경 속에서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된 안도 타다오의 ‘스미요시 나가야’<그림 15>에서 볼 수 있다. 그 곳의 중정은 외벽과 외벽의 연장으로서의 가벽으로 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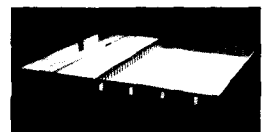
<그림 11> 메스quita, 코르도바 (Mezquita, Córdoba), 987년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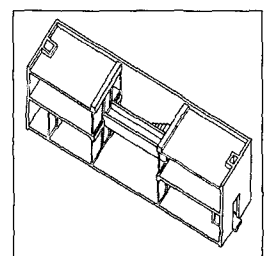
<그림 12> 빌라 레페타, 안드레아 팔라디오 (Villa Repeta, Andrea Palladio), 1557



<그림 13> 세 중정 주택, 미스 반 데어 로에, 1934



<그림 14> 세그라테 보육원, A 모네스티롤리, 1972



<그림 15> 스미요시 나가야, 안도 타다오, 1975

15)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전통건축의 경우 ‘담’이라는 요소가 건축구성, 특히 외부공간 구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소쇄원 등에서 볼 수 있는 담의 구성은 단순히 외부공간을 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건축구성 및 동선, 자연과의 관계 등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일본의 이세신궁이나 중국의 자금성 등에서 볼 수 있는 담의 건축구성적 역할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여 차후의 연구에서 다룰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서구건축과의 잦은 교류가 있었던 이슬람 건축을 예외적으로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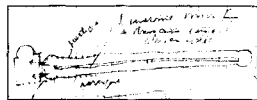
16)호사카요이치로우, Op. Cit., p.67.

싸여 있으며, 안도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그 중정 공간을 '작은 우주'¹⁷⁾라고 부르며 영역성의 확보를 통한 장소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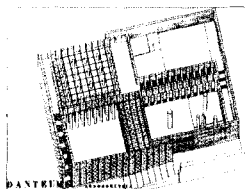
(2) 동선의 조정-방향성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벽은 공간을 한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방향성을 암시한다. 내부공간에서의 벽체는 공간의 움직임을 좌우하며, 외부공간에서 길게 뻗은 수직의 가벽은 하나의 목적지로 향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¹⁸⁾ 빌라 아드리아나 페칠레의 긴 벽은 '철학자의 방(Sala dei filosofi)'으로 강한 방향성을 주면서 방문객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며 '수중 극장(Teatro Marittimo)'으로 이끌게 한다<그림 16>.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벽돌벽의 집' 계획안은 유동적 공간으로 이루어진 실내공간과 벽을 따라 흘러가는 외부공간으로 구성되어 동선을 유도하고 시선의 변화를 통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세페 테라니(Giuseppe Terragni)는 '단테움(Danteum) 계획안'<그림 17>에서 가벽을 이용하여 건물 각 부분의 전개에 따른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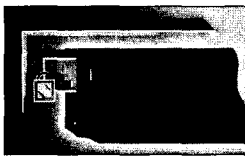
안도 타다오는 현대건축에서 가벽의 사용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며 그의 건축에서 벽은 중요한 조형요소이다. 시간의 이행 속에서 신체의 경험으로 체험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안도는 건축에 접근하는 방법에서 길고 우회적인 동선을 도입한다. 신체는 이러한 이동 경로에서 자연의 풍경을 단속적, 연속적으로 체험하며 장소의 감각을 경험한다. '물의 교회'<그림 18>에서 안도는 서로 다른 크기의 정방형 평면을 겹쳐 인공 호수에 면하여 배치하고, 이것을 둘러싸는 가벽을 L자형으로 세워 경계를 한정하였다. 방문자는 건물을 돌면서 긴 벽을 따라 접근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동선을 회유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물과 자연의 풍광에 신비감을 부여하며, 신체의 움직임과 자연의 변화를 통해 대상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수법이다. '룩코 교회'<그림 19>에서도 동선은 여러 풍광을 접하도록 회유하는 수법으로 처리되었다. 이 교회는 예배당, 종탑, 지붕 있는 열주, 그리고 자연경관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¹⁹⁾ 목적지를 향해 강한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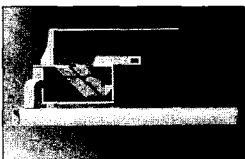
<그림 16> 빌라 아드리아나의 페칠레, 르 코르뷔지에, 1911



<그림 17> 단테움 계획안, 주세페 테라니, 1938



<그림 18> 물의 교회, 안도 타다오, 1988



<그림 19> 룩코 교회, 안도 타다오,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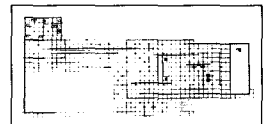
을 주는 가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내·외부 영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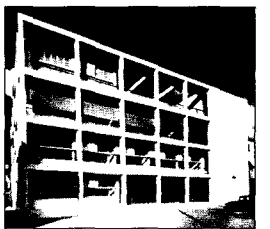
(1) 내·외부 공간의 유동성

벽은 면의 구성방법에 따라 한정된 영역을 형성시킬 수가 있지만 벽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획의 일부가 절단되면 안과 밖의 경계에 애매한 영역이 생긴다. 즉 벽의 일부가 제거됨으로써 불안정한 영역구성이 되며, 이와 같은 구조가 진행되면 벽은 점차로 분단되어 애매한 영역이 증가하게 되고, 벽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분리해줌과 동시에 양쪽 영역을 상호 관입시킬 수 있게 된다.²⁰⁾ 이러한 개념은 근대건축에서 투명성이나 공간의 침투성으로 나타나는데,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벽돌벽의 집'이나 '바르셀로나 파빌리언'<그림 20>에서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벽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을 창조해내고 있다. 주세페 테라니의 '카사 델 파쇼(Casa del Fascio)'<그림 21>는 프레임을 이용한 이중피막으로 나타나며 건축물의 중량감을 없애고 투명감과 안길이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건축은 특히 면(面)이나 프레임을 겹치게 하는 표층(表層)의 조작에 특징이 있으며, 카사 델 파쇼에서 정면 오른쪽에 붙여낸 벽면을 왼쪽의 프레임과 대비시키고 있다. 그 결과 깊숙이 유리면과 벽면이 보여 투명감을 빚어내고 있으며, 프레임을 이용한 이중피막의 대표적 예²¹⁾로서 현대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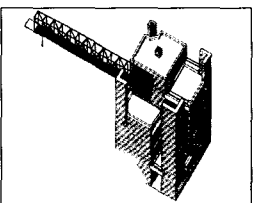
현대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공간의 침투성의 개념은 인간이 배제된 채 내·외부공간의 무한한 상호관입의 개념을 중시한 모더니즘 건축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그 특성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공간의 침투성의 개념은 인간과 공간의 경계가 해체되어 그 경계가 모호하여 다층화된 투명한 경계를 지니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층화(layering), 투명성, 공간적 중심성, 공간적 경계와 인지적 윤곽, 분리와 연결의 공존 수법 등은 공간의 침투성을 얻기 위한 디자인의 주요 전략들이다.²²⁾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그림 20> 바르셀로나 파빌리언, 미스 반 데어 로에, 1929



<그림 21> 카사 델 파쇼, 주세페 테라니, 1932-36



<그림 22> 리바 산 비탈레 주택, 마리오 보타, 1971-73

19)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p.126-129.

20)호사카요이치로우, Op. Cit., p.74.

21)하라구치 히데아키, 루이스 칸의 공간구성, 강병근 역, 화영사, 2001, p.118.

22)길성호, Op. Cit., p.149.

17)안도 타다오, Op. Cit., p.31.

18)김홍기, Op. Cit., p.271.

‘리바 산 비탈레(Riva San Vitale) 주택’<그림 22>은 가벽의 기하학적 프레임 속에 실내공간이 배열되고 크게 잘려진 개구부를 통해 루가노 호반의 자연 사이에 자유로운 교류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외부공간의 애매한 경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²³⁾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정형적 구성 속에서 중심성을 확보하여 통합된 형태 및 공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벽은 경계를 만드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경계를 허무는 건축적 도구로서도 사용되어 내·외부공간의 유동성과 상호 관입을 형성하고 그 경계를 조절하며 때로는 내·외부공간 및 형태를 통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자연환경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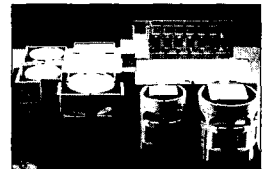
자연환경의 조정은 크게 외부경관과의 관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조절이라는 두 방향에서 언급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건축에서 벽은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로 사용되었기에 개구부의 폭은 상인방의 길이에 따라 한정되었지만, 근대 이후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은 가로로 긴 수평창을 가능하게 하여 외부 경관을 끌어들이 수 있게 되었다.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브와 2층 테라스 둘레의 가벽은 외벽의 연장으로서 일차적으로 폐쇄된 형식의 외부공간을 만든 후 가로로 긴 개구부를 뚫어냄으로써 외부의 자연적 경관을 파노라마적으로 끌어들이나<그림 23>.

“경치를 바라다면 차라리 그것을 한정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과감한 판단으로 선별하여야 한다. 즉 먼저 벽을 세워서 시계를 막고, 차례로 연속되는 벽면을 군데군데 철회하여 거기에 수평선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다”²⁴⁾는 그의 방법은 옥상층 가벽의 프레임을 통한 원경의 도입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그림 24>.

자연과 인공의 관계에서 차경의 수단으로서 가벽의 역할을 볼 때 마리오 보타의 만노(Manno)에 소재한 ‘바르키(Barchi) 저택 계획안’<그림 25>에서 큰 아치를 가진 한 장의 벽은 상징적이다. 이 벽의 바깥쪽은 잔디와 나무를 심은 숲이 이어져 있고 그 안쪽은 인공적으로 포장된 공간으로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풍경은 이 한 장의 큰 벽에 의해 단절되지만,²⁵⁾ 아치의 개구부를 통해 전원의 경관을 걸러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빌라 아드리아나 페칠레의 긴 벽이 자연 속을 가로지르면

서 인공적 환경을 한정하는 모습이나, 안도 타다오가 “하나의 새기줄이 성역(聖域)과 속세(俗世)를 구분 짓는다. 하나의 기둥이 풍경 속에 삽입될 때, 기둥은 풍경을 이미 분절하기 시작한다. 자연 속에서 독립된 하나의 벽도 또한 마찬가지로 풍경과 대립하고, 풍경을 분리하고, 폭력적으로 변용시키고, 한편으로는 풍경과 서로 조화되어, 벽에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는 이미 건축화로의 징조를 내포하기 시작한다.”²⁶⁾ 는 언급을 연상시킨다.

루이스 칸은 건축이란 한 장의 벽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몇 장의 벽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깨닫고, 면을 적층(積層)하여 구성하거나 방 속의 방 또는 벽 속의 방, 이종의 벽을 디자인한다.²⁷⁾ 로마건축의 폐허에서 영향을 받은 이러한 이중피막은 기후 조건을 조절하는 외관에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장치이며, ‘솔크 생물학 연구소(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의 커뮤니티 센터’<그림 26>가 칸이 이중피막을 사용한 최초의 예일 것이다. 햇살을 피하기 위해 창에서 거리를 두고 벽을 세우고 거기에 아치 등의 구멍을 내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한 벽을 이용한 이중피막은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의 햇살이 작열하는 곳에서 많이 채용되게 되었다. 또한 벽을 이용한 이중피막은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의 작품에서 처럼<그림 27>, 빛이 건축공간에서 차지하는 기후조건을 넘어선 상징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솔크 생물학연구소 커뮤니티 센터, 루이스 칸, 195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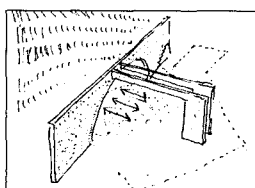
<그림 27> 브리온(Brion) 모지, 카를로 스카르파, 1969



<그림 23> 빌라 사브와, 르 코르뷔지에, 1929, 2층 테라스



<그림 24> 빌라 사브와 옥상



<그림 25> 바르키 저택 계획안, 마리오 보타, 1975

3.3. 형태 구성의 수법

(1) 조형성 강조

건축에 있어서 과거 사례들은 그들이 상응하는 인간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동기를 넘어서 그들의 형태적인 면에서 비교된다.²⁸⁾ 또 루이스 칸의 말처럼 디자인이란 질서 속에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며, 형태는 그 속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소에서 생겨나고 특히 벽체는 건물에 형태적 질서를 부여하며,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많은 건축가들이 벽에 집착을 했고 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벽을 세운다는 행위는 건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물리적인 실체에서 머물지 않고 건축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²⁹⁾

26) 안도 타다오, Op. Cit., p.360.

27) 코야마 히사오, 건축의장강의, 김광현 역, 도서출판 국제, 1998, pp.108-109.

28) Giorgio Grassi, L'architettura come mestiere e altri scritti, 6a ed., Franco Angeli, Milano, 1992 중에서 'Per una ricerca sull'abitazione in Francia',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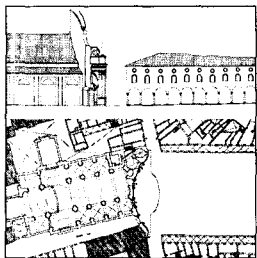
29) 김홍기, Op. Cit., p.268.

23) 호사카요우이치로우, Op. Cit., p.76.

24) Le Corbusier, 작은집, 황준 역, 미건사, 1993, pp.24-25.

25) 호사카요우이치로우, Op. Cit., p.76.

건축형태와 공간 구성을 통제하게 되는 건축적 질서는 종교 건축물의 정면에서 잘 나타난다. 기독교 공인 이래 서구에서 교회는 도시 중심부에서 행정관청과 함께 중심 광장에 면하여 도시의 핵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양식상의 이유나 도시형상과의 불일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파사드가 변형되고 독자적인 형태질서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파사드가 내부공간에서 독립되어 가벽의 형식으로 정면의 형상을 결정짓고 조형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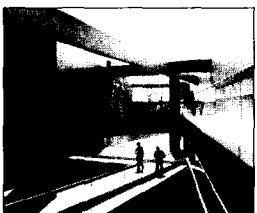
<그림 28> 비제바노 두오모 (Duomo di Vigevano), 16세기

근대 이후 가벽은 건축물의 역동성을 표현하려는 의지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án)은 멕시코 전통의 색채와 미니멀리즘적 구성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건축적 정원의 고요한 구성은 역동적 가벽으로 강렬하고 입체적인 공간감을 갖게 된다<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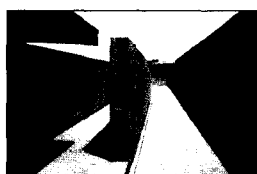


<그림 29> 로스 클루베스(Los Clubes), 루이스 바라간, 1964

바라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안도 타다오는 '명화의 정원(Garden of Fine Arts)'<그림 30>에서 자립하여 있는 콘크리트 벽으로써 공간을 시각상 중층적인 영역으로 나눈다. 그 곳에서 다리, 데크, 경사로에 의해 3차원적인 산책로 같은 정원이 만들어지며 정원의 시각적 변화가 일어난다.³⁰⁾ 이러한 조형성 강조는 미니멀리즘적 건축가들의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레싸 다 팔메이라(Leça da Palmeira) 수영장'<그림 31>에서 가벽은 통로의 중앙에 위치하여 강한 방향성을 주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조형성을 강조한다.



<그림 30> 명화의 정원, 안도 타다오,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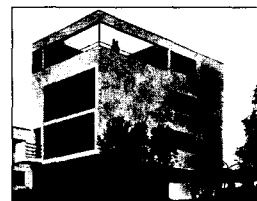


<그림 31> 레싸 다 팔메이라 수영장, 알바로 시자, 196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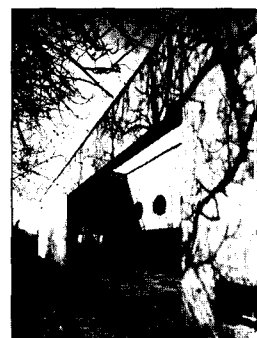
(2) 건축·도시선 조정

르네상스 시기 팔라초의 구성에서 내부 중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 가벽은 건축선을 조정하고 도시구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의 건축에 있어서 벽과 개구부의 관계는 단순히 벽과 창, 벽과 문의 물리적 관계였다. 즉 벽체와 개구부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그 개념이 바뀌어져 특정한 기능이 주어지지 않는 가벽을 만듦으로써, 도시를 향한 독특한 건축적

표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때 벽과 뚫려진 개구부는 건축의 형태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같은 개념은 르 코르뷔지에의 '바이센호프(Weissenhof) 주택'<그림 32>이나 빌라 사브와에서처럼 1920년대 주택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것으로, 바이센호프 주택의 옥상정원 부분의 벽체는 공제되어 가벽으로 존재한다.³¹⁾ 이러한 프레임으로서의 가벽의 사용은 근·현대건축에서 합리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작가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빌라 사브와 2층 테라스의 가벽 또한 영역성 확보나 수평 연속장을 통한 자연경관의 도입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형태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육면체의 윤곽을 유지하는 프레임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마리오 보타나 루이지 스노찌(Luigi Snozzi) 같은 티치노(Ticino) 건축가들의 건축에서 볼 수 있으며 <그림 33>,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이나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등 뉴욕 파이프 건축가들에게서 극단적으로 표출된다 <그림 34>.



<그림 32> 바이센호프 주택, 르 코르뷔지에, 1927



<그림 33> 산 나짜로(San Nazario) 청사·초등학교, 루이지 스노찌, 1978



<그림 34> 하우스 II, 피터 아이젠만, 1969



<그림 35> 파울로 실험실 계획안, 조르조 그라씨, 1968



<그림 36> 산 로렌초 성당 구역정비, 모네스티롤리, 1983

건축물 자체의 윤곽선을 규정하는 건축선보다 건축물과 도시와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도시선의 윤곽을 강조하는 사례는 역사적 도시의 물리적 맥락이 도시의 건축적 형태를 규정하는 이탈리아에서 두드러지며, 조르조 그라씨(Giorgio Grassi)나 안토니오 모네스티롤리의 작품에서 관찰된다. '파울로(Paullo) 실험실 계획안'<그림 35>에서 그라씨는 정형적인 건물 전면부의 내부적 오픈스페이스인 좁고 깊은 중정을 도로와 맞닿는 부분까지 서로 길이가 다른 가벽으로 이어주어 균일한 도로막에 대응하고 있다. '밀라노(Milano) 시립도서관 계획안'(1991)은 스페인 점령시대에 구축되었다가 현재에는 그 흔적이 도로선을 따라 남아 있는 성벽의 윤곽 위에 건물과 가벽을 배치하여 단

30) Masao Furuyama, Ando Tadao, 3rd. ed., Birkhäuser, Basel, 1996, p.191.

31) 김홍기, Op. Cit., p.286.

절된 역사적 도시의 맥락의 재구축을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모네스티롤리가 계획한 밀라노 '산 로렌조 성당 (Basilica di San Lorenzo) 구역정비 계획안' <그림 36>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이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시키며 도시선을 회복시키는 장치로서 물리적으로 연속된 벽과 가벽을 사용하고 있다.

<표 1> 건축구성에서 가벽의 역할, 특성과 구성방법 및 작품 사례

구분	건축구성적 역할	특성 및 구성방법	대표적 작품 사례
외부 영역	영역성, 장소성	담의 변형, 에워싸인 공간, 중정	코르도바 메스quita 빌라 레페타(안드레아 팔라디오) 세 중정 주택(미스 반 데어 로에) 세그라테 보육원(안토니오 모네스티롤리) 스미오시 나가야(안도 타다오)
	동선 조정, 방향성	축성, 경관 변화, 동선 유도	빌라 아드리아나의 페칠레 및 수중 극장 벽돌벽의 집(미스 반 데어 로에) 단테움(쥬세페 테라니) 물의 교회 및 록코 교회(안도 타다오) 레싸 다 팔메이라 수영장(알바로 시자)
내·외부 영역	내·외부공간 유동성	상호 관입, 외부공간의 내부화	벽돌벽의 집(미스 반 데어 로에) 바르셀로나 파빌리언(미스 반 데어 로에) 카사 델 파소(쥬세페 테라니) 리바 산 비탈레(마리오 보타)
	자연환경 조정	차경 프레임, 빛의 조절, 이중피막	빌라 사브와(르 코르뷔지에) 바르키 저택(마리오 보타) 솔크 생물학 연구소(루이스 칸) 브라운 베가 묘지(카를로 스키프)
형태 구성	조형성 강조	건축질서 조정, 파사드 변형, 역동성	비제바노 두오모 로스 클루베스(루이스 바라간) 명화의 정원(안도 타다오) 레싸 다 팔메이라 수영장(알바로 시자)
	건축·도시선 조정	건축윤곽 형성, 도시의 물리적 맥락 대응	바이센호프 주택(르 코르뷔지에) 빌라 사브와(르 코르뷔지에) 산 나짜로 청사·초등학교(루이지 스포찌) 하우스 III(피터 아이젠만) 파올로실현실, 밀라노 시립도서관(그라세) 산 로렌조 구역정비 계획안(모네스티롤리)

4. 결론

본 연구는 가벽의 역사적인 변천과 특성 및 구성방법을 파악함으로써 가벽이 건축구성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가벽이 시대에 따라 변천된 과정과 건축구성적 역할³²⁾을 영역구성과 형태구성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벽은 내력벽 구조에 의해 한정된 구성수법과 표현을 나타내던 근대 이전까지는 건축조형 요소로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근대 이후 발달된 기술에 의한 비내력벽의 자유로운 사용과 조형관의 변화에 따라 의식적인 가벽 사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밀폐된 상자의 해체를 주장한 데 스틸 건축가들의 선언을 기반으로 합리주의적, 미니멀리즘적 경향의 근·

현대 건축가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어졌다.

둘째, 외부영역을 구성하는 가벽의 사용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에워싸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영역성과 장소성을 구축하게 되고, 이것은 대개 건축물 구성의 일부분인 담의 변형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외부영역에서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가벽은 공간을 한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동선을 유도하고 시선의 변화를 통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사용된다.

셋째, 내·외부 영역의 관점에서 가벽은 경계를 만들고 동시에 허무는 건축적 도구로서 이용되어 내·외부 공간의 유동성과 상호 관입을 형성하고 그 경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외부 자연경관을 끌어들이는 차경의 수단과, 빛 등의 기후 조건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넷째, 형태구성의 측면에서 가벽은 건물의 파사드 등 건축적 질서를 통제하는 수단이나 건축물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이용되거나, 도시의 물리적 맥락에 따른 도시선에 대응하는 도구로 적용되기도 한다.

결국 외부 환경과 차단된 실내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적 요소인 벽은 가벽 형식으로서의 변형을 통해 건축구성적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혀 있는 벽은 열려 있는 벽이 있으므로 해서 더욱 풍요로운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1. 길성호, 수공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2. 임석재, 네오 큐비즘과 추상 픽처레스크, 북하우스, 2001.
3. ---, 신추상과 네오 코르뷔지안 건축, 북하우스, 2001.
4. 김흥기, 건축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2.
5. Alberti, Leon Battista, L'architettura, trans. Giovanni Orlandi, Edizioni il Polifilo, Milano, 1989.
6. Aurigemma, Salvatore, Villa Adriana, Istituto Poligrafico e Zecca dello Stato, Roma, 1984.
7. De Benedetti, Mara, Pracchi, Attilio ed., Antologia dell'architettura moderna, Zanichelli, Bologna, 1988.
8. Denti, Giovanni ed., Le Corbusier in Italia, clup, Milano, 1988.
9. Furuyama, Masao, Ando Tadao, 3rd. ed., Birkhäuser, Basel, 1996.
10. Grassi, Giorgio, L'architettura come mestiere e altri scritti, Franco Angeli, 6a ed., Milano, 1992.
11. Loli-Ghetti, Mario et al., Villa Adriana, Silvana Editoriale, Milano, 1988.
12. Le Corbusier, 작은집, 황준 역, 미건사, 1993.
13. 안도 타다오, 주택에 대한 사고, 김동영 역, 도서출판 국제, 2000.
14. 코야마 히사오, 건축의장강의, 김광현 역, 도서출판 국제, 1998.
15. 하라구치 히데야키, 루이스 칸의 공간구성, 강병근 역, 화영사, 2001.
16. 호사카우유이치로우, 경계의 형태, 이진민 역, 한국산업훈련연구소, 1999.

<접수 : 2003. 10. 31>

32) 사례 건축물 대부분에서 가벽의 건축구성적 역할이 단일의 범주에만 한정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하나의 건축적 총체로서 표현되고 있지만,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주로 그 대표적인 역할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개별적인 작가나 건축물 대상의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복합적인 건축구성적 역할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